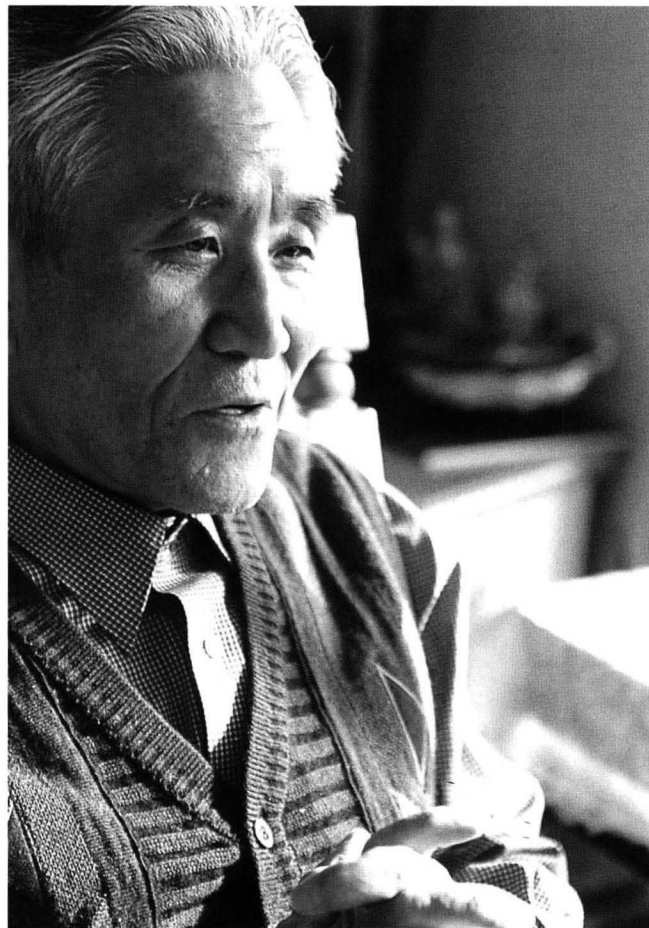


# ‘왕의 귀는 당나귀 귀’... 행복한 老이발사



《전환시대의 논리》 저자 리영희 선생

『통치세력과 피치 대중 사이의 모순은  
오래가지 않겠단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사족을 들먹가서  
「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소리도  
그 소리가 모이면,

물렸던 사람에게도  
지식이 알려질 뿐 아니라  
어젠가는 맞대놓되  
「대중이 밟았다」고 말하는  
왕의 소년의 나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고요하다

1974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된 《전환시대의 논리》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파장은 엄청났다. 그만큼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비이성적으로 마비되어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2002년 겨울 광화문, 촛불로 '말하는 많은 소년'의 시위가 이렇게 범시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조에는 '양식과 지성의 용기'로 무장한 리영희라는 실천하는 지식인이 자리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순간의 즐거움만 좇고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책은 잘 안 읽으려고 해 걱정이야. 그렇지만 촛불 시위처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걸 보고 희망을 갖지. 아마도 활자 미디어만의 힘으로는 힘들었겠지. 인터넷의 힘인 것도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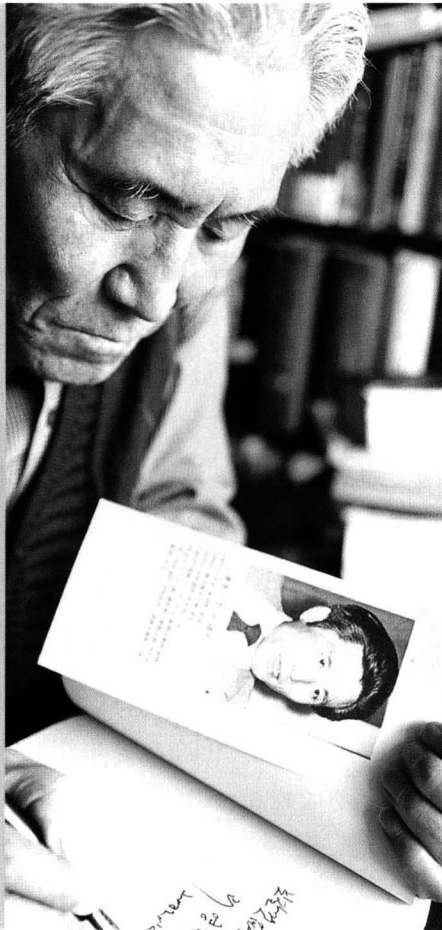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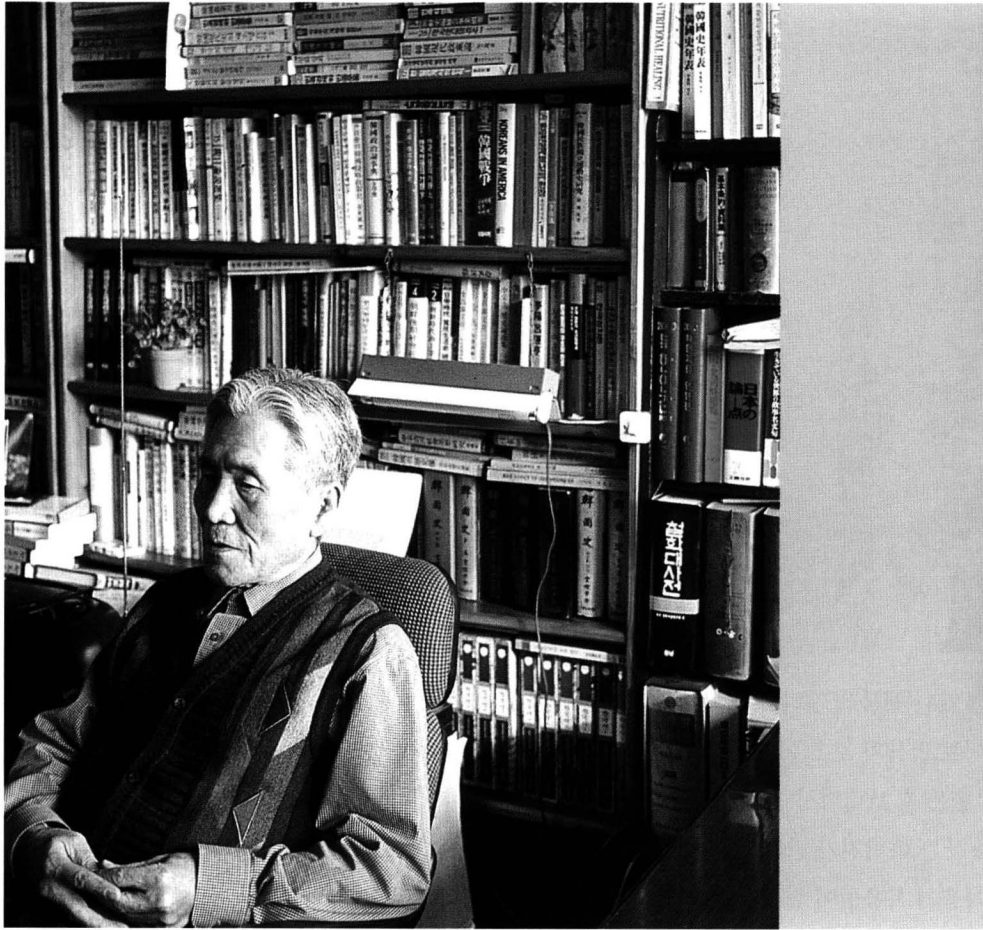
평생을 자신의 손으로 원고를 써온,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리영희 선생이지만 인터넷을 놀라운 기동성과 전파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매체로 받아들인다.

“내게 호사스러운 기호가 딱 하나 있다면, 바로 만년필이야. 지금껏 원고는 만년필로만 썼지. 만년필만은 좋은 걸 쓰려고 해. 볼펜은 너무 편리함만 좇는 것 같고... 난 편리함만 좇는 사람들의 경박함에 거부감이 많아.”

## 인세 수입이 끊기기를 기다린다

언젠가 리영희 선생은 한 잡지에서 자신의 인세 수입이 제로가 되면 행복하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의 글이 더 이상 읽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면, 살 만한 세상이 아니겠냐는 뜻이었을 것이다.

“내 책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새롭지 않겠지.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증거고...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이야기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중국문제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놀라운 증언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 같은 건 없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는 거니까 나로선 좋지. 시대는 항상 흘러가는 것이니까.”



《전환시대의 논리》는 금서로 묶였던 데다가 책을 구하기 어려워 청계천 헌책방에서 구입하거나 복사해서 돌려 읽은 독자들이 많아 출판사의 판매부수보다 열독률이 훨씬 높은 책이다. 창작과비평사의 설명에 따르면 2002년 한 해를 기준으로 400여 부가 판매되었는데, 주로 새학기 때 주문이 온다.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는 엄격함과 문제의 핵심을 보는 날카로운 시각이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훌륭한 전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 특히 일부 언론인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회주의로 뭉쳐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신문사에 근무할 때 국민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싫어서 차라리 노동자로 살자고 다짐한 적이 있었어. 신문사를 나와서 양계장을 할까 택시를 몰까 고민하다 ‘아폴로’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잠시 일한 적도 있지.”

《전환시대의 논리》 이후로 《8억인과의 대화》 《10억인의 나라》 《역정》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스핑크스의 코》 《반세기의 신화》 등의 저서를 통해 불합리한, 알려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우리 시대의 지성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책은 《동굴 속의 독백》(2000년)이다.

“날 딱딱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동굴 속의 독백》은 내가 발표한 글들 중 비교적 부드러운 것만 모아서 엮은 책이야. 내 고회를 기념해 인연을 맺고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기념회 비슷하게 해준 것이지.”

#### 아직 노신 흠뻑 만한 작가는 없다

“윈고 쓰다가 쓰러졌었는데, 아직 손의 마비가 풀리지 않아서 요새는 글을 거의 못 써. 손운동도 할 겸 하루에 몇 자씩 쓰는 정도야. 그 몇 자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어젠 날씨가 제법 따뜻해서 잠깐 뒷산 약수터에 산책을 다녀왔는데, 내 형편이 이렇다 보니 서점엘 나간다는 건



“노신은 나의 삶 속에 분간할 수 없게 녹아들어 있고,  
내 글의 정신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을 만큼  
리영희 선생은 노신과 그의 글을 사랑한다.

업무도 못 내고 오히려 그간 쌓아놓았던 책들을 정리하고 있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신간을 보내주는데, 고마워서 먼저 서문 읽어보고 목차 보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읽지. 건강 때문에 독서를 오래 하는 것도 힘들거든. 대신 좋은 책 보내줘서 고맙다고 엽서를 보내긴 하는데…”

요즘 리영희 선생은 글을 못 쓰는 아버지가 안타까워 아들이 선물한 ‘녹음기’를 들고 고민중이다. 디지털 방식의 최신형 녹음기 사용법이 선생에게겐 만만찮은 일이다.

이렇게 무리한 일은 자제하고 건강을 챙기는 걸 가장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아오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얼마 전에는 《아리랑의 노래》(국내 출간 제목 《아리랑》, 동녘)를 국내에 소개해 줘 고맙다고 주인공 김산(본명 장지락)의 아들이 찾아왔다. 한 단체의 초청으로 들어온 김산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아리랑》과 선생 이야기를 하자 인사동에서 뵙기를 청한 것이다.

“책 제목이 ‘아리랑’ 이라고 하니깐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소설 쓰는 조정래 선생을 알려줬던 모양이야(웃음).”

리영희 선생은 지금까지 글을 쓰기 위한 자료조사를 혼자서 했다. 선생만큼의 문제의식과 안목으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였다. 한 달 두 달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닌 데다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피어린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기에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명확한 글쓰기를 하게 된 데는 노신<sup>魯迅</sup>의 영향이 지대했다.

“노신은 나의 삶 속에 분간할 수 없게 녹아들어 있고, 내 글의 정신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을 만큼 리영희 선생은 노신과 그의 글을 사랑한다.

“난 문학작품은 잘 안 읽어. 사회변혁에 대한 책들에 관심이 많지. 그리고 아직까지 노신만한 작가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노신 책을 평소 일어판으로 읽는데, 내 세대는 아무래도 한자와 일어가 익숙하지. 한자를 보면 바로바로 의미가 와 닿는데 한자 없이 한글로만 쓰여 있는 책은 오히려 읽기가 어렵거든. 기차나 여행 다닐 때도 노신 문고본을 꼭 들고 다녀. 노신과 40년을 함께한 셈이지.”

선생은 또한 지식체계를 뒤흔드는 좋은 책들이 나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출판저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정신적, 사상적 의식개혁에 공헌하길 바란다는 고언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추천**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